

해남 시티투어버스 노선 변경... 관광 활성화 기대

남창시장 연계 미식 여행 코스 미남축제 연계상품 개발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코스 동반 안내 체험 프로그램 매회 매진 행렬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해남시 시티투어버스'가 9월 부터 가을 투어로 노선을 변경해 운영된다. 해남 오일장 체험, 미식 축제 참여 등 해남만의 특징을 체험할 수 있는 일정으로 짜여져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9월 부터는 해남의 가을을 경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투어 코스가 정해졌다.

정기노선은 해남의 대표 5일시장인 남창시장을 연계해 2일과 7일 장날에 출발하는 코스와 전어, 삼치 등 해남 가을 제철요리를 연계해 매주 일요일 출발하는 미식여행 코스가 운영된다.

명랑대접축제, 해남미남축제 등 하반기 해남 축제를 연계한 상품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노선에는 해남군 문화관광해설사

가 답습해 해남의 역사, 문화, 관광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투어를 즐길 수 있어 더욱 즐겁고 흥미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해남시투어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스한바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자형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해남 시티투어버스는 편하고, 가볍게 해남을 방문할 수 있고 다양한 매력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가을 코스도 더욱 다채롭게 구성해 해남을 찾는 여행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첫 운행에 들어간 해남 시티투어버스는 광주 정기노선과 수도권 및 광주에서 출발하는 기획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3달간 운영된 여름 시티투어는 여름철 주요 관광지과 고구마빵 만들기, 막걸리 주조장 방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된 가운데 매회 매진행렬이 이어지며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8월 말 마무리 됐다.

해남=전연수 기자



경영실습 임대농장 '망고학교' 개소 신안군, 5명 청년 애플망고 재배

신안군은 지난 3일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망고 학교' 개소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박우량 군수, 군의원, 5명의 청년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개소식을 연 '망고 학교'는 지도읍에 소재한 군유지에 6600㎡ 규모의 하우스형 임대농장 2개소를 건축했다.

임대농장은 환경 설정에 따라 시설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전기난방 설비 및 재배작물과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 등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을 갖추고 2023년 준공됐다.

이번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참여한 5명의 청년 농업인은 애플망고 2000주를 재배한다.

신안군이 청년어선 구입 임대사업에 이어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미래 먹거리인 시설 농업의 육성 과 인구소멸,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속에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이유를 찾아주기 위해서다.

신안=홍일갑 기자

해남군, 군민 간염 무료검사 40세이상 군민 500명 선착순

해남군은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B형·C형 간염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우리나라 국민 암 사망원인 2위인 간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군민으로 전년도 사업 참여자와 B형·C형 간염 보균자로 관리 중인 자는 제외된다.

혈액검사를 통한 간염 바이러스 검사로 전액 무료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검사를 원하는 군민은 군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1층 민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1-531-378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배추재배 농가들이 배추를 심고 있다. 해남의 겨울배추는 9월 중순까지 정식을 마치고 겨울철 월동 이후 12월 부터 본격 수확된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황토땅서 배추 정식 한창

해남군 황토 들녘마다 배추 정식이 한창이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9월 초 정식하는 가을배추는 10월 말부터 수확하는 김장 배추이다. 겨울배추는 9월 중순까지 정식을 마치고 겨울철 월동 후 12월부터 수확한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로 울

해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 총 4300여ha 면적의 가을·겨울 배추를 재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추가격 안정을 위한 배추작목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도 341ha 가량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배추는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하고 단단하

고 껍지게 여문 노란 속이 특징이다.

김치를 담가도 아삭하고 단맛나는 식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김장김치에 최적화된 '명품 배추'로 통하고 있다.

해남겨울배추는 지난 2006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 등록 제 11호로 지정되어 그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장배추 수확은 10월 말부터 시작돼 12월까지 이어진다.

해남=전연수 기자

다산시민강좌 무료 운영 강진다산실학연구원

강진다산실학연구원은 강진군민에게 다산 정약용의 학문과 강진학을 소개하고 알리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다산시민강좌'를 9월에서 12월 중순까지 총 8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다산시민강좌는 강진군과 학·관 업무협약을 맺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설 강진다산실학연구원이 강진군 문화진흥을 위한 학술사업의 일환으로 다산 선생의 문화,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교양 인문학 강좌이다. 강좌는 매회 차 다양한 주제로 강진군 도서관 3층 어울림터에서 오후 6시에 진행되며, 강진군민을 비롯한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강진다산실학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다산학 전문가 및 중견 연구자 초청 특강과 함께 강진학 학술대회도 이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및 주제에 대한 정보는 강진다산실학연구원(061-430-3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혁 강진다산실학연구원 박사는 "강진군민들의 다산실학 사상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다"며 "다산 정약용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강진 문화사업의 다양성 확장에 앞으로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세계자연유산 신안갯벌, 국제 생태교과서 활용

바닷새 서식지 복원 등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세계유산 신안갯벌에서 해양수산부와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RSPB)의 교류협력사업인 바닷새 서식지 복원 교육프로그램이 추진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영국의 전문기관인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를 초청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닷새 서식지 복원의 중요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

한 것.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중요성을 차지하는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전 세계에서 독특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수문학적 연안 퇴적체와 높은 종 다양성을 가진 다양한 생태계와 전 지구적인 이동을 하는 철새의 부양에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의 강사로 초청된 영국왕립조

류보호협회 관계자는 "지난 2023년 국제철새심포지움에 참석해 신안갯벌을 둘러봤고 드넓은 갯벌과 수많은 바닷새에 대한 인상깊은 기억에 따라 신안갯벌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현장실습지인 신안갯벌은 수십년에 걸친 꾸준한 보호관리와 복원을 통해 갯벌유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현장실습지로 선정된 만큼 살아있는 생태교과서인 신안갯벌을 전 세계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진도군,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

진도군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청년 5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

과 외부 청년유입 도모를 위해 추진한다.

전남도 내 주소를 둔 청년(18세-45세)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그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1년간 지원하며 청년을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온보딩 프로그램)과 공동체(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의무 채용 기간인 1년이 지난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기업과 청년에게 각 200만원씩 성과금을 지급한다.(단,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110% 수준인 월 23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인구정책실 일자리지원팀(061-540-3814) 또는 사업운영기관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750-77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jnilbo.com